

거주자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 소집단워크샵패널방법을 이용하여 -

Comparative Analysis of Shared Space Needs according to Social Class through Small Group Workshop Panel Method

이 연 숙**
Lee, Yeun Sook
신 화 경***
Shin, Hwa Kyung
홍 미 혜****
Hong, Mi Hy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user needs for community space design, especially shared space, and compare them according to social class. Since the shared space concept is new, it will be difficult for resident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new idea. This study used a Small Group Workshop Panel Method instead of the conventional survey method for this reason. The subjects were 6 panel groups of 5 people per each group. Each of the panels included 3 consecutive workshops. The results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All the residents wanted various kinds of shared spaces for everyday living and leisure activity. While there were generally great similarity regardless of resident's sub characteristics, some found distintively dissimilar. The residents of 20s pyung apartment wanted day-care center, multi purpose room for meeting and family events, library, study room, sports facilities, and cultural center in order. The shared spaces that residents of 30s pyung apartment wanted were library, study room, common dining, sports facilities, and cultural center in order. The residents of 50s pyung apartment wanted library, study room, multi purpose room, common storage, sports facilities, and cultural center in order. These findings imply some diverse plans instead of uniform ones are to be deliberately considered. This results can be usefully applied to develop new collective housing for different social class residents.

* 본 연구는 S건설과의 산학협동 연구결과의 일부임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 정희원, 상명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전임강사, 이학박사

**** 정희원, 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시간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I. 서 론

공동주택이란 원래 각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함으로써 인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식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주거형식이다. 여기서 공동의 기반이란 공동주택 단지내 공유공간에서의 생활행위를 의미하며 공유공간에서의 인간적 교류 즉 근린관계의 좋고 나쁨이 생활의 적주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된다(강수림, 1991). 이와같이 공동주택이 여러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의 장'임을 고려해 볼 때 공동주택에서의 단위주거외부환경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각 단위주거가 외부공간과 폐쇄된 영역을 형성하여 자기완결적인 내부체제 유지에만 치중해왔고 집합된 주거동 및 단지는 단순히 많은 주거단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총체로만 취급되어오므로써 진정한 의미의 함께사는 삶을 고려한 주거가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생활의 형성을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공동주택에서 공유라는 개념 즉, 주거단위는 각각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외부공간의 여러 공동 복리시설에서 함께 접촉하고 그것을 함께 소유하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연숙(1991)은 미래주거모델인 공동주택에서의 미래지향적인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주거내,외가 유기적인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고, 단위주거외부공간에 변화하는 주거생활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민공유공간¹⁾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것은 거주자 생활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이웃관계 및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개념은 건설업체가 제공해주지 않았어도 거주자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현재 여러 아파트에서 공동수납공간, 공동도서실, 모임의 방, 체육공간 등이 만들어져 이용됨으로써 생활공유화에 기초한 주거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 사회의 지향에 순응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공유공간이 주거계획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주민공유공간의 특성은 거주자 삶의 질을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주거환경특성으로 인지되어질 것이다. 특히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정도 및 원하는 시설의 종류 등은 거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적절한 주민공유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연적이다.

한편 거주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데는 전통적으로 설문조사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져왔다. 그러나 이방법은 '주민공유공간'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응답자들이 이해하지 못한채 답할 가능성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주민공유라는 개념은 각기 다른 이웃들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절충해야 풀려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해와 절충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연숙(1994, 1995)은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워크샵패널을 시도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조사대상자들간의 상호작용 및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증명해 보인 바 있고, 주거계획분야에서의 유용성을 논하였다.

거주자 특성은 사회경제적특성, 가족특성,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하며 그 하위특성 또한 주거규모, 가족생활주기, 직업, 주부취업여부, 경제상태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주거규모는 이미 거주자 특성을 구분하는 주요기준으로 평가되어왔고, 가족생활주기는 가족구성원의 연령적 특성과 자녀의 상호작용패턴이 다르므로써 생활체제를 구분하

1) 주민공유공간 : 공동주택에서 모든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시설

는 주요변인으로 이용되어져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워크샵패널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규모와 가족생활주기가 다른 거주자 특성별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성격상 일반화의 목적보다는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 상의 과정과 그 결과를 밝히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II. 문헌고찰

1. 공유집합주택과 주민공유공간

프랭크(Franck, 1991)는 공유집합주택(Collective Housing)을 거주자 개인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단위주거에 모든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과 시설이 갖춰진 집합주거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공유란 비혈연의 거주자들에 의한 공동시설과 공간의 사용을 의미하며 거주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활동, 협력을 전제로 공동작업을 추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연숙(1995)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성격에 대응하여 주민공유공간을 유형화하였다. 첫째,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제한된 공간을 최대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취지에 부응하는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예를 들면 소규모작업장,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공동창고, 다목적행사실, 손님숙소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잃어져 가는 우리의 이웃공동체 의식을 복원시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이웃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예를 들면 다목적행사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소규모작업장, 공동식당 등이 포함된다. 셋째,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변화중 주거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여가행태 수용 국면에 부합되는 공간으로, 예를 들면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크럽,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골프장, 문화센터, 소극장, 노인복지회관 등이 포함된다. 넷째, 편리성의 차원에서 주거환경에 근접하여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

향적인 공간으로, 예를 들면 상가, 슈퍼, 은행, 유치원, 병원, 약국, 목욕탕, 세탁소, 비디오가게, 학원, 서점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병리문제, 또 앞으로 우려되는 제반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예를 들면 공동놀이방, 탁아시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회관, 부녀복지회관, 업무공간, 경비실, 정보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유공간의 유형들과 구체적인 종류들은 개발단지의 거주자특성과 지역사회 상황에 부합되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영리지향적 공간들이 복지지향적인 공유공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공간자체가 거주성을 반영하도록 특성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공유집합주택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프랭크(Franck, 1991)는 공유집합주택의 공유공간이 지니는 장점을 첫째, 단독주택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여러종류의 시설을 가질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둘째, 식사준비, 쇼핑, 세탁, 아이돌보기 등의 일을 거주자간의 협동과 협력하에 분담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실제적 측면, 셋째, 공동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져 친밀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이와같이 공유공간은 거주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등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부족한 주택물량을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활은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안기돈(1989)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외부계획의 문제점으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부족하여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우며, 삭막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그의 우리나라 공유집합주택계획에 관한 연구들(도규환, 1987; 이기욱, 1989)도 주로 영역성 확립차원과 공동체 및 근린관계형성 차원에서 주거단지에서 거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

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영역의 만족도가 높고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변화, 가족구조, 거주패턴의 변화로 인해 현대의 근린관계 및 환경은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거주자의 정체성형성에 기여하며 개개인이 어떠한 발달단계에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공유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원활한 근린관계와 커뮤니티형성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며, 주민공유공간이 잘 이루어질 때 주민들 상호간에 주거단지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게 되고 그 환경에 오래 거주하는 정주화의식이 고조될 수 있다.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결과 비교

연구 방법	대상 위치	고영희(1992)	이연숙, 윤민경(1994)	이연숙, 김선경, 홍미혜(1995)	
		중산층 소형 아파트 거주자	소형아파트 거주 기본 여고사	소형아파트 거주 기본 은행사무직 여성	
소집단 워크샵 패널 방법	각층마다	공동 김치독	빨래건조장		
	한동마다	공동모임방 자녀독서실 공동창고 공동세탁실 공동놀이방 공동채소밭	공동보관소 공동창고 공동세탁실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공동세탁실	
		동과 동사이	다목적행사실 녹지공간		
		여러동마다	헬스크림 에어록실	공동작업장	공동집회실 및 행사장
	단지내	수영장 취미교실	종합체육센터 공동탁아시설	공동도서관 공동탁아시설	
연구 방법	대상 위치	이연숙, 유수영(1993)	이연숙, 김선경, 홍미혜(1995)		
표본 조사 방법	각층마다	중산층 25.7명 아파트 거주자	소형아파트 거주 기본 은행사무직 여성	공동빨래건조장	
	한동마다	공동수납실, 공동세탁실 유모차,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공동창고, 놀이방 공동세탁실, 공동작업장 공동집회실 및 행사실	
		여러동마다 /단지내	공동탁아시설 공동도서관		공동도서관

* 소집단워크샵패널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고 그 형식이 단계적으로 중진되도록 계획되었으므로 일반 표본조사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생기기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종류와 그 위치는 각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 볼 때 주민공유공간의 위치는 공통적으로 영역적인 보호감이 있는 경계내에 생기기를 원하고 있고, 종류를 보면 주거공간내에서의 생활행위 중 일부가 빠져나와 주거외부공간에서 수용되길 원하는 공간, 자녀를 위한 공간,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거내부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거주자의 여가생활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단위주거외부의 주민공유공간과 근린시설들의 계획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속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며 또한 거주자의 안정된 근린공간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자료수집방법으로 소집단 워크샵 패널방법을 사용하였다. 소집단 워크샵 패널방법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방법인데 주거학 분야에는 고영희(1992)가 처음으로 응용하였다. 이는 소수로 구성된 집단을 연속적으로 모이게 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요구, 문제 및 대안 등을 스스로 토의, 규명하게 하며 집단 공통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단이 상호작용하여 개개인의 표출된 욕구를 재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재정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주자 참여가 높은 자료수집방법이다. 그럼으로써 거주자의 실생활실태와 요구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파악하고 워크샵의 각 패널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중요개념을 추가시키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파악하였다.

1. 워크샵 집단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 해운대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중 현재 아파트규모와 가족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분양면적 20평대(26평), 30평대(31평, 32평, 35평), 50평대(53평)에 거주하며, 각각의 평형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족주기로 판단되는 만자녀 취학전인 형성기, 만자녀가 국민학생인 확대초기, 그리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확대말기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족중 전업주부로 워크샵 집단을 구성하였다. 한 집단은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결과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샵 대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3개의 평형대 별로 두집단(A집단, B집단)을 구성, 모두 6집단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반복 진행하였다.

2. 워크샵 실시 및 진행내용

워크샵은 1994년 2월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다. 1명의 진행자가 토의안건표를 토대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연구원 1명이 워크샵 토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제 진행을 녹음하였다. 본 워크샵은 집단별로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표 2>와 같이 1회에는 구성원들의 생활실태로 일반사항과 현재 근린생활편익시설 이용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파악하고 2회에서는 단위주거 내, 외부 공간계획적 요구로 1회에서 파악된 단위주거외부 생활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안들의 우선순위,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3회에서는 원하는 지하주민공유공간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주민공유공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2> 워크샵 단계별 진행내용

1회	2회	3회
이용실태	공간계획적 요구	특정조건제시 공간적요구*
• 구성원의 일반사항	<공유화개선 설명>	<연가생활설 및 지하공간 설명>
• 현 근린편익시설이용 실태 및 문제점	•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종류	• 원하는 지하주민공유 공간 종류 및 우선순위
• 근린편익시설 개선대안		

* 마지막단계는 실제로 주민공유공간이 가능한 특정위치를 제시 하였을 때의 반응을 보기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지원업체가 주민공유공간을 지하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지정하여 추가로 파악한 것이다.

3. 워크샵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분석방법으로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상호보완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소집단 워크샵 패널방법에 의해 얻어진 자료들, 즉 구성원들의 토의내용은 내용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패널의 단계에 따른 거주자 요구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근린생활편익시설 분석표를 구성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근린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및 요구에 대해 단순산술법을 이용한 양적분석을 하여 양적으로 분석된 결과와 질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내용의 객관성을 보완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고학력과 안정된 직업을 가지며 1992년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근로자 월평균수입이 129만원으로 제시된 것을 볼 때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규모가 크고 가족생활주기가 높을수록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고, 주택규모가 작고 가족생활주기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고 주택소유율이 낮았다. 한편 20평대와 30평대의 조사대상자들은 주택규모확대와 시설의 질적인 면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자녀를 위한 주거내, 외부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반면 50평대 조사대상자들은 주택규모 축소요구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분가 등 가족구성원이 축소되는 생활의 변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었다.

2. 근린생활시설 이용실태 및 문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각기 다르나 부산 해운대지역이라는 동일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생활편익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20평대, 30평대, 50평대 거주자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평일의 경우 남편들은 근린생활편의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주부는 대개 상가시설의 이용이 일반적이고 몇몇 주부의 경우만 단지밖의 스포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단지내, 외의 유치원과 학원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일요일의 경우는 가족모두가 거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한편 현재 근린생활편의시설 이용시의 문제점을 토의한 결과와 이를 공간적 측면의 문제와 연관시켜 존재계획, 규모계획, 배치계획, 시설계획, 운영계획의 5개 문제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거주자 특성별 근린생활편의시설 이용시의 문제점과 공간적 측면의 문제유형

거주자 특성	근린생활편의시설 이용시의 문제점	문제유형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거주자 집단	·상가시설의 위치가 접근하기 불편하다 ·상가가 한곳이어서 가격이 비싸다 ·일상생활용품이 부족해 필요시 차 타고 나가야 한다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이 없다 ·학원시설과 놀이터시설이 부족하다 ·놀이터시설 관리가 잘 안된다	·배치계획 ·운영계획 ·존재 및 배치계획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 집단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없다 ·반상회 등 주민이 모일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 지하공간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으며 위험하다 ·슈퍼가 독점이어서 가격이 비싸고 물건종류도 적다 ·스포츠, 취미시설이 이용시 차를 타고 가야하니 불편하다 ·재래시장과 동사무소가 멀다	·존재계획 ·존재계획 ·운영계획 ·운영계획 ·존재 및 배치계획 ·배치계획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 집단	·편의시설이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하다 ·목욕탕, 병원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주변에 없어 불편하다 ·스포츠 시설이 없다	·존재 및 배치계획 ·존재계획 ·존재계획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의 20평대 거주자들은 '상가시설의 위치가 불편하다', '상가가 한곳이어서 가격이 비싸다', '일상생활용품이 부족하여 필요시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이 없다', '놀이터와 학원시설이 부족하다', '놀이터시설이 관리가 잘안된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

활유지에 필요한 시설 부족과 여가시설과 자녀놀이, 교육시설 부족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시설로의 접근성 및 근접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간적 측면으로 보면, 존재계획에서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가장 많고 그 외 배치계획, 운영계획, 시설계획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들은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없다', '반상회 등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 아파트 지하공간이 운영 및 관리소홀로 쓰레기장이 되고 있으며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슈퍼가 독점이어서 가격이 비싸고 물건종류도 많지 않다', '스포츠, 취미시설 이용시 차를 타고 가야하니 불편하다', '재래시장과 동사무소가 멀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자녀 교육시설 상의 문제와 주민 생활공유를 위한 시설의 문제, 여가시설 미비 및 근접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간적 측면으로 보면, 존재계획에서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가장 많고 배치계획과 운영계획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들은 '편의시설이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하다', '목욕탕, 병원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주변에 없어 불편하다', '스포츠시설이 없다'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근접성 문제와 여가시설 부족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간적 측면으로 보면 존재계획에서의 불편함과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방치하고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동일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이용하는 근린생활편의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거의 비슷하였으며,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근린시설의 종류가 제한되어 거주자 특성별로 큰 차이없이 모두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근린편의시설

설이 근처에 없다는 것과 그래서 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근접성 및 접근성문제와 여가시설의 부족이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거주자 특성별로 달리 나타난 요구를 비교해 보면,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거주자들은 자녀의 놀이시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주로 상가시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들은 자녀교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생활의 공유화 문제를 언급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지하공간 이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들은 주로 시설의 존재유무 및 거리상의 불편함을 주로 언급하였고 역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요구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안정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3단계에 걸쳐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1단계에서는 현재 근린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토의하여 거주자 스스로가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편리성을 위해 단지내로 위치가 이동되기를 원하는 시설과 새로 단지내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들을 토의를 통해 집단 공통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앞으로의 사회가 공유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며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공간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일부 아파트단지내에 주민공유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미래주거생활의 변화방향인 생활의 공유화 및 주민전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후 생활편익시설들 중 주민공유시설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을 토의, 제시하게 하여 거주자들이 제시하는 주민공유공간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는 '여가활

동이 현대 일반국민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이며 점차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어 생활에 변화가 초래된다'는 미래사회의 여가향성과 '지하공간도 이제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계획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지하공간²⁾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후 주민공유시설중 단지내 지하공간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을 토의, 제시하게하여 모든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현재 거주자들의 요구와 생활 공유화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요구, 그리고 여가 및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요구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요구를 파악하도록 계획한 이유는, 첫째, 주민공유공간을 계획할 때 단순히 현재의 근린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조사만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근린시설과 주민공유공간은 별도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거단지는 한번 형성되면 수십년이상 지속되는데, 초기계획시 현재 존재하는 개념만을 적용시킨다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들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주거생활에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소개하여 그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셋째,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어느 장소에 놓이는가에 따라 요구가 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원업체가 실제 주민공유공간을 지하에 계획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지하공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럴 경우 특정상황이 이미 조건화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현실적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2) 본 연구는 산학협동연구로서, 연구비 지원건설업체가 실제 주민공유공간을 단지내 지하공간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며, 현 사회적 상황에서 지상보다는 지하공간의 개발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최종단계에서 이 조건을 제시하였다.

- 1)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거주자 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거주자 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20평대 가족형성기 거주자집단의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요구

구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내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	
1 단계	집단지공공된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공동놀이방 공동집회/행사실 공동보관소 공동도서실 병원 상가/슈퍼, 스포츠시설	공동작업장, 국민학교 공동세탁실, 동사무소/경찰서 공동식당, 약국 녹지시설, 쓰레기분리수거 문화시설, 주차장 성당

구분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	
2 단계 주민전용 및 공유화에 대한 개념설명후 토의결과 (우선순위)	집단지공공된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공동놀이방 (3,1) 공동집회 및 행사실 (4,6) 공동도서실 (15,2) 수영장 (17,5)	주차장, 은행 상가/슈퍼, 공동보관소 목욕탕/사우나, 공동창고 스포츠시설, 공동세탁실 문화센터, 공동식당

구분	지하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	
3 단계 여가지향성 지하공간 소개 후 전체종합 토의결과 (종합순위)	집단지공공된 우선순위에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문화센터 (9,2)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10,1) 수영장 (12,3) 볼링장 (13,9)	상가/슈퍼, 공동세탁실 공동놀이방, 공동창고 공동집회/행사실, 노래방 목욕탕/사우나, 공동식당 스포츠시설, 병원 문화센터

()안의 숫자는 (A집단 우선순위, B집단 우선순위)를 표시함.

1단계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내 생기기 원하는 공통의 시설들은 공동놀이방, 공동집회 및 행사실, 공동보관소, 공동도서실, 병원, 상가/슈퍼, 스포츠시설 등으로, 주로 어린자녀가 있는 주부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응급시설 외에 단위주거내 생활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활의 일부를 주거외부공간에서 공유하는 시설을 원하고 있

었으며 스포츠시설과 같은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다음 2단계의 공유화 및 주민전용개념 설명후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공통의 시설 역시 공동놀이방, 공동집회/행사실, 공동도서실, 수영장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돌보는 문제와 생활공유화추진, 그리고 자신의 여가생활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여가지향성 및 지하공간 개념을 소개한 후 지하주민공유공간에 생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시설로는 문화센터, 공동도서실, 수영장, 볼링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모두 여가시설들이었다. 공동놀이방이 공통으로 우선순위에 든 시설에서 나타나지 않고 개별적 원하는 시설에서 나온 것은 일부 거주자들이 자녀를 위한 시설은 지하가 아닌 지상의 쾌적한 공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거주자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돌보기였으며, 이들은 연구자가 개념을 설명하기 전부터 생활공유화와 여가생활에 관심이 있었다. 소형이라는 좁은 주거단위내부생활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생활의 일부가 주거단위외부공간으로 빠져나와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는 이들의 여가 및 개인생활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공동놀이방은 토의 결과 우선순위에선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지하는 쾌적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관념때문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하주민공유공간 계획시 놀이방을 옥외공간과 연결되도록 개방되는 선큰가든의 형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 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 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30평대 확대초기 거주자집단의 주민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

구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내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	
1 단계 참석자들의 자발적 토의결과 (무순위)	집단지공공된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국민학교 병원 동사무소 스포츠시설 취미시설 공동도서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 파출소, 우체국 은행 주민공동집회실, 공동행사실 목욕탕/사우나

구분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	
2 단계 주민전용 및 공유화에 대한 개념설명후 토의결과 (우선순위)	집단지공공된 시설이 없었으므로 집단별로 나누어 우선순위로 정리함	
	A 집단	B 집단
	1.공동식당 2.마을문고 3.공동놀이방 4.농수산물직판장 5.공동행사실 6.공동작업장	1.수영장 2.에어로빅실 3.헬스클럽 4.탁구장 5.실내테니스장 6.베드민턴실 7.목욕탕,사우나

구분	지하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	
3 단계 여가지향성 지하공간 소개후 전체종합 토의결과 (종합순위)	집단지공공된 우선권에는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1,3) 에어로빅실 (3,4) 문화센터 (4,5) 공동식당(7,6) 볼링장 (12,11) 수영장 (13,1) 실내테니스장 (14,10)	공동놀이방(2,_) .공동작업장(8,-) 공동행사실(9,_) .실내볼프장(10,_)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놀이공간(,2) 헬스클럽(,7) .소극장(,8) 탁구장(,9) .베드민턴장(,12)

()안의 숫자는 (A집단 우선순위, B집단 우선순위)를 표시함

(1,_)은 B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항목으로 A집단에서는 1순위로 나타난 것을 표시함

(,1)은 A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항목으로 B집단에서는 1순위로 나타난 것을 표시함

1단계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내에 생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시설로는 국민학교, 병원, 동사무소, 스포츠시설, 취미시설, 공동도서실이었는데, 이는 주로 자녀를 위한 시설, 주부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응급시설 외에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나타남으로써 주부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2단계의 주민전용 및 공유화에 대한 개념 설명

후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에서는 두집단간에 공통된 시설이 없었는데 이는 각 집단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A집단은 비교적 지역사회 부녀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적극적인 주부들로서 주민공유공간에 대한 생각이 연구자가 개념을 설명하기 전부터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집단으로, 주로 주민들이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 즉 공동식당, 마을문고, 공동놀이방, 공동행사실 및 작업실을 주민공유공간으로 원하고 있었다. 한편 B집단은 주로 개인의 여가행위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로서 주로 에너지를 요하는 신체적 운동시설 즉 수영장, 에어로빅실, 헬스클럽,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실, 목욕탕을 원하고 있어 이들에게 주민공유공간은 주로 여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여가지향성과 지하공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후 지하 주민공유공간에 생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시설은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에어로빅실, 문화센터, 공동식당, 볼링장, 수영장, 실내테니스장이었는데, 이는 자녀공부시설과 여가시설로 분류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집단 역시 연구자가 개념을 설명하기전부터 생활공유화, 여가, 그리고 지하공간활용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이들이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민공유공간으로 원하는 시설은 크게 주민간에 생활과 행위를 공유하는 시설과 스포츠시설, 문화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성상 자녀를 위한 시설, 자기개발을 위한 시설, 생활공유 및 편리성을 위한 시설,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로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집단이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

내에 생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시설들은 목욕탕, 이발소, 재래시장, 에어로빅장, 문화센터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여가시설이었다. 다음 2단계의 공유화 및 주민전용개념 설명후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공통의 시설로는 에어로빅장, 문화센터, 공동놀이방, 공동도서실, 공동보관소, 공동집회 및 행사실이 제시되어 생활의 공유화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도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6> 50평대 확대말기 거주자집단의 주민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

구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단지내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	
1 단계	집단지공통된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참석자들의 자발적 토의결과 (무순위)	목욕탕 이발소 재래시장 에어로빅장 문화센터	중고등학교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탁구장 실내골프장

구분	주민공유공간에 생기기 원하는 시설	
2 단계 주민전용 및 공유화에 대한 개념설명후 토의결과 (무순위)	집단지공통된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에어로빅장 공동도서실 공동놀이방 공동보관소 공동집회 및 행사실 문화센터	실내골프장 공동창고 테니스장 유치원 공동세탁장 놀이터 녹지시설 주차장

구분	지하 주민공유공간으로 생기기 원하는 시설	
3 단계	집단지공통으로 우선권예든 시설	집단, 개인별 차이가 있는 시설
여가가동성 지하공간 소개후 전체종합 토의결과 (종합순위)	공동집회 및 행사실 (2,1)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3,2) 문화센터 (4,7) 수영장 (5,3) , 탁구장(6,9) 실내테니스장 (7,10) 배드민턴장 (8,6) 에어로빅장 (9,4)	공동도서실 서점, 문구점 공동놀이방 공동세탁장 롤러스케이팅장 실내골프장 목욕탕/사우나

()안의 숫자는 (A집단지 우선순위, B집단지 우선순위)를 표시함.

마지막 3단계에서 여가지향성 및 지하공간 개념을 소개한 후 지하주민공유공간에 생기기 원하는 공통적인 시설은 공동집회 및 행사실, 공동도서실, 수영장, 문화센터,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으로 역시 여가생활을 위한 시

설과 생활공유화를 위한 시설들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50평대 거주자집단은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민공유공간으로 원하는 시설은 주민간에 생활을 공유하는 시설과 스포츠시설, 문화시설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평대 거주자집단과는 달리 주택내부공간이 좁아서 외부공간을 공유하고자 하기 보다는 현 주거내 수납공간체계의 비합리성과 많은 생활용품들로 인한 내부수납공간의 부족과 생활의 편리성 측면에서 주민공유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4) 소결 : 거주자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 비교

3단계에 걸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유화개념 설명전에도 거주자들은 생활공유화에 기초한 주민공유공간들을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및 지하공간 개념 소개전에도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컸고 현재 방치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의 공유화와 여가생활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이 실증적으로 거주자들의 요구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주자 특성별 원하는 주민공유공간을 이 두가지 개념하에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거주자 특성별 원하는 주민공유공간

거주자 특성	공유화를 위한 시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 20평대 거주자집단	공동놀이방 공동집회 및 행사실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집단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공동세탁장	에어로빅실 문화센터 볼링장 실내테니스장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집단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 공동집회 및 행사실 공동보관소	문화센터 수영장 에어로빅실 배드민턴장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유공간 계획시 생활의 공유화를 위한 시설과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두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은 어느 단계에서나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생활의 공유화를 위한 주민공유공간으로는 가족생활주기가 형성기인 20평대 소형아파트 거주자집단에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동놀이방과 좁은 주거내부공간에서 치르기에는 불편한 집안의 행사 및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집회실과 행사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가족생활주기가 확대초기인 30평대 거주자집단에서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도서실 및 독서실이 중요하고 그외 주민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식당이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확대말기인 50평대 거주자집단에서는 공동집회실 및 행사실과 잘 안쓰고 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가생활을 위한 주민공유공간은 크게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의 동적, 정적인 시설이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주민들의 생활이 과거와 달리 단위주거 내 외부의 유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단위주거디자인 향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생활의 질적향상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유도성을 최대한 방지하며 미래 중시될 중요 개념들을 단계적으로 소개하여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해 내는 과정을 통해, 주민공유공간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개념, 즉 생활의 공유화와 여가생활 그리고 적절한 근접성이 거주자들의 요구와 선호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거 설문조사에만 의존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

법론으로 소집단위크샷패널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이고 역동적으로 통찰하고자 하였다. 미래적 시각에서의 계획을 위해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자 하거나, 결과가 결국 거주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절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진정한, 잠재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단계에 걸쳐 질문하면서 이들의 반응이 절충되어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소집단위크샷패널방법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거주자들의 의견이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 한번의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요구를 실제 계획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며 방법론 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요구 및 반응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주거단지 계획시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방법론 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상사례집단을 반복하여 연구하거나 단계적 반응을 수용하는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례집단의 수를 확장한 연구나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조사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연속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강수림. 우리나라 주택사업의 궤적-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의 아파트. 한국주택사업협회. 1991.5. 9-26.
2. 고영희. 중산층 소형아파트의 공간계획을 위한 생활행태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 논문. 1992.
3. 도규환. 주거단지계획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영역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87.
 4. 안기돈. 도시 저층집합주택 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9.
 5. 이기욱. 집합주거단지의 주거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6. 이연숙.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개발보급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1.
 7. 이연숙, 유수연. 국민주택규모 기준 변경에 대응한 거주자의 반응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 1993. 3-13.
 8. 이연숙, 윤민경.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 계획 연구-소집단위크샤넬 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문집. 8권. 1994. 74-83.
 9. 이연숙, 김선경, 홍미혜. 중산층 맞벌이가구를 위한 소형집합주택 계획 연구-서울 거주 은행사무직 취업여성가구를 대상으로 -. 이연숙(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1995. 149-168.
 10. 이연숙, 홍미혜, 윤민경. 30평대 아파트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대응하는 주거단위 내, 외 공간계획을 위한 소집단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9권. 1995. 40-51.
 11.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서울:경춘사. 1995.
 12. Bell, P.A., Fisher, J.D., Baum, A., and Greene, T.C.. Environmental Psychology.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96.
 13. Frank, K.A. Overview of collective and shared housing. in Franck, Ahrentzen (eds) New Households New Housing. NY: Van Nostrand Rienhold Co. 1991. 3-19.